

## 토론문

2015. 2. 12.

명지대학교 빈기범

현재 금융업 특히 증권업은 스스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두가지 거대한 추세에 갇혀 힘 못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구 구조 변화 및 고령화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진행 중인 전세계적 경기침체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 및 고령화는 우리 경제 구조 전반의 역동성이나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그런만큼 기존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장기적으로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둘째는 경기침체인데, 현재 미국은 상당히 좋은 경기를 보이고 있고, 일본도 그런 편이구요... 그럼에도 유가 하락, 지지부진한 유럽 경제, 러시아 위기, 그리스 위기 등이 여전히 글로벌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 또는 최장기적인 경제 및 사회 트렌드는 증권사가 속수무책으로 뒤집어 쓰고 당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기존에 증권사가 잘 나가던 시기에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증권업 위기는 극복하려는 지금의 노력이 오히려 헛수고로 돌아갈 공산이 큼니다. 여기서 극복하려는 노력이란 비즈니스 구조 변화, 신상품 개발 등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내외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비용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업계는 이걸 해야 우리가 사나, 저걸 해야 우리가 사나, 도대체 무얼 해야 우리가 사나..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조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은 먹먹한 경기침체의 구름이 걷힐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 후, 좋은 경제 국면이 도래했을 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대안들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증권업과 금융업이 위기를 맞다 보니, 금융당국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신문 보도를 보면 금융당국의 매우 전향적인 금융규제에 관한 인식 변화가 있는 듯 한데요. 금융당국 수장이 자율규제나 사후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이 곧 법은 아니기에 금융당국의 인식 변화가 실제로 법에 반영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여간, 금융업에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규제 혁신, 규제 철폐가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고빈도 거래마저도 쉽게 허용되기 어려운 법제도적 시스템이면 지금 폭발적 논의의 대상인 핀테크도 쉽게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런 면에서 불법 저런 면에서 불법... 얼마든지 불법적인 법적 요소들을 들이밀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규제는 한국 경제의 손과 발을 뒤로 묶고 온 몸**

**을 동아줄로 공공 묶고 있는 수준입니다. 숨은 겨우 실 정도이지만 고통스럽게 죽기 직전이죠.**

국민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난리들인데... 경제 관련 법은 그 어느 영리 행위도 부가가치 창출 행위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기업이건 개인이건 영리적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규제 체계는 결코 관료나 정치인 만의 잘못이 아니라, 온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1시간이면 법인 설립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며칠 걸리는지 한 번 해보십시오. 족히 1주일은 걸립니다. 이거 해도 이런 법에 걸리고, 저거 해도 저런 법에 걸립니다.

이제 이런 규제 체계로 더 이상 한국을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한계에 이미 봉착하였습니다.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게 한국 경제는 사망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규제는 좋은 거 아닌가? 필요한 규제 아닌가? 그거 따지다가 죽어 갈 것입니다. 일단 우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거 나쁜거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규제 혁신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는 금융당국은 사전적인 규제가 불충분하다고 느낀다면 사후적 처벌을 강력하게 하십시오. 특히 시장의 신뢰나 신용을 저하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벌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